

제68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14:00	장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	-----------------------	----	-------------

□ 참석 : 재적 34명 중 29명 참석

□ 서기 / 감표위원 : 교선국장 / 중앙선관위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 해고자 활동상황 주기적 보고 요구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 대응 현황

▷ p.50 : (12) 중부노조 소송비용청구소송 중

– 2018.04.19 판결선고(13:30, 1별관 312호) → 2018.06.12 변론

기일(수정)

4. 제17년차 회계결산

▷ p.90 : '통상임금 청구소송 성공보수 및 특별조합비 납부내역' 본부별 납부내역 파악 후 미납자 납부 독려 요구

▷ p.123 : '1112 노동자대회 참석현황' 중 중부발전본부 오류 수정

▷ p.125 : 'CMS 미납내역'에 신분상태 표기 요구(예 : 퇴직, 전직, 승격 등)

5. 제17년차 회계감사 결과

6. 소식지/성명서 등 모음

□ 심의안건

【안건1】 제18년차 사업계획 방향에 관한 건 : 의견 반영 후 통과

▷ 정기적인 조합원 교육 및 소통강화 : 교육선진실 사업계획 반영

▷ PSM(공정안전관리) 강화 및 잡무 증가에도 현장 인원은 현행유지(본사인원은 비대) 지적과 노동환경개선 사업 요구 : 노동안전실 사업계획 반영

▷ 박근혜정권 시절 발전5사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사외이사 퇴출 성명서 채택 요구

▷ 이명박근혜 적폐정권과 사측의 극악한 탄압에도 현장조합원 스스로 발전노조를 지키고 가입한 사례들을 모아서 대의원대회에서 발표 요구

▷ 조합간부와 조합원 관계개선 사업 요구 : 본부수련회 등 필요시 교육배치

▷ 중부발전(보령) 반일제 폐지 대응 요구 : 박근혜정권의 양적확대만을 위해

도입된 나쁜 일자리정책으로 상급단체와 함께 폐지 추진

【안건2】 제1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제18년차 대의원대회에 아래와 같이 안건상정 한다.

때 : 2018년 04월 25일(수) 14시 ~ 04월 26일(목) 18시
곳 : 미정

【안건1】 제17년차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안건2】 임원 선출의 건

【안건3】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안건4】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

【안건5】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안건6】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가입 승인의 건

【안건7】 중요 정책 결정의 건

【안건8】 제18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발전노조 규약 제1조에 ‘공공운수노조’를 표기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운수노조에 취지, 장단점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앙위원회에 공지하며, 대의원대회 안건상정 여부는 중앙집행부에 위임한다.

【안건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이영우(동서), 정영조(남동), 송명호, (남부), 윤기배(서부), 이행우(중부) 이상 5명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안건4】 단체교섭위원 구성 심의에 관한 건

▷ 규약에 따라 위원장/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5개 본부장 및 정책실장(간사)으로 구성한다.

【안건5】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의 발전노조 가입에 관한 건

▷ 인사 및 설명 :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최성균 위원장/이태성 사무처장,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의 발전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현장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18년차 대의원대회에서 사전 설명·교육을 배치하고 안건으로 상정한다.

【기타토의】

1.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투쟁의 건

▷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발전5사는 ‘정규직전환 제로’ 계획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중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2,398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도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숫자이며, 겨우 32.24%에 불과하다. 게다가 직접고용 대상인원은 소방·안전 분야의 157명만 계획하고 있어 2%의 극소수 전환만을 예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발전5사와 기업노조 등은 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락을 거들먹거리며 온갖 악의적 억측을 유포하고 있다.

우리 발전노조는 발전현장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직접고용방식 뿐임을 명확히 하며, 악의적 억측을 바로 잡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이 “다치거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